

북한개발소식 06

2021 Jun | 통권 188호

| 이달의 주제 |

한국교회 북한선교 참여와 동원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한국교회 북한선교와 선교참여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1 Jun

이달의 주제 :

한국교회 북한선교 참여와 동원

권두칼럼	01	한국교회 북한 선교와 선교참여
칼럼_1	07	북한선교 현장의 인적자원개발
칼럼_2	13	정베드로_총회세계선교회(GMS)의 북한선교와 선교동원
칼럼_3	18	정종기_한국교회에서 고신총회통일선교원의 역할
칼럼_4	25	최영웅_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남북한선교와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 소개
사역 수기	29	조이김 선교사_탈북민을 통일세대로 세우는 사역
북한 뉴스	34	토니 블링컨 미 국무, “공은 북한에 있다” 외
서평	36	통일의 눈으로 백령도를 다시보다
북한 기도 제목	39	한국교회 북한선교의 발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선교환경이 위축되었다. 몇몇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의 열악한 보건 환경 속에 코로나19로 인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받으시기도 했고,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불가피하게 선교지를 일시적으로나마 떠나셔야만 했다. 선교사 추방 등의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북한선교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의 국경이 막히고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강도 높은 이동통제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사역의 위축이 불가피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통일선교 활동도 모임 제한 등으로 인해 한동안 소강기를 보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결국 종식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든다면 그간 위축되어 있던 북한선교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주요 선교단체는 물론이고 여러 교단에서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 운동 및 북한선교와 통일을 대비한 여러 교육과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통일 선교 콘텐츠들이 생산, 전파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선교현장이 안정화되고 국내에서도 북한선교를 위한 기도와 교육 활동 및 탈북민 사역 등이 힘을 받기를 바라며 이번 호에서는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북한선교 활동을 살펴보고 해외 북한선교 현장의 상황을 조망하면서 선교사의 비전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정보들을 정리하여 나누고자 한다.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본 교회 내 북한/통일 선교 활동

북한선교와 관련하여 해외 현장 사역 및 국내에서의 기도, 교육 활동 등에 헌신하여 사역하는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다. 다만 이번 호에서는 좀 더 교회 중심으로 독자님들께 관련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 주요 교단의 북한선교사역으로 한정해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여러 교단들이 교단 총회 내 별도 부서나 기관을 개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강화하며 북한/통일 선교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선교주간을 정하고 노회별 북한선교대회를 여는 등의 정기적인 활동 외에도 전국적인 기도운동이나 뜻을 둔 이들을 위한 교육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교단의 북한/통일 선교 사역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예장 통합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북한전도대책위원회를 계승하는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¹ 통합 교단은 해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선교를 위한 교육과 기도운동 등에 나서고 있다. 먼저 해당 위원회와 장로회신학대학교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의 공동 주관으로 매년 통일선교대학원 과정(1년)을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21년도) 기준으로 11기를 맞고 있다. 또한 산하기관인 북한선교연구소를 통해 탈북민 신학생 통일준비 워크숍, 탈북민 제자화훈련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국내 탈북민 사역 관련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예장 합동 교단은 총회 차원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평화통일기도회를 가지며 교단 차원에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기도운동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지만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슬로건으로 작년 12월 6일 제주동산교회(김경태 목사)에서

부터 다시 기도회를 시작하였으며 전국 주요 지역에서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다.² 또한 총회선교회(GMS)에서는 실제적인 북한과 통일 선교를 위한 각종 포럼 및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북한선교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자 애쓰고 있다. 특히 팀 선교와 네트워크를 통한 북한선교를 추진하고자 북한사역글로벌네트워크(GNN)를 설립하는 등 실제적인 현장사역을 고려한 북한/통일선교 활동에 나서고 있다.³

예장 고신 교단은 총회 내 통일대비위원회와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를 통해 탈북민 학생 지원 활동 및 관련 세미나 등 북한/통일선교 관련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올 1월에는 교단의 통일 선교 전략을 세우고 통일선교의 허브 역할을 감당할 목적으로 통일선교원을 설립하였다. 통일선교원은 일선 교회 북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도운동, 각종 세미나, 워크숍, 선교학교 등의 교육 활동, 세계선교원(KPM)의 북한선교사 발굴, 모집, 훈련, 파송, 케어 사역을 지원하는 등 통일선교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전망이다.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서부연회 비롯해 다양한 기관에서 북한선교 관련된 사역을 진행해왔다. 서부연회는 연회 내 22개 지방에 속해 있는 해방

전 북한소재 388개의 감리교회중 100개 교회를 재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서부연회는 북한선교주일을 지키며 교회재건기금을 적립해가고 있고, 매년 평화통일기도회, 북한선교 정책세미나, 대북물자지원, 탈북민 지원, 우회적 북한선교지원, 통일부 등과의 대외협력 등의 사업을 벌여가고 있다.⁵

선교국 내 사회농어촌환경부에서도 북한선교 및 탈북자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감리교신학대학 안에는 한민족연구소가 세워져 한민족 선교 전문과 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또한 12년도에 설립된 북한회복감리교연합에서는 정기적인 기도회와 8주 과정의 통일선교학당 등을 진행해왔다.⁶

이 외에도 기독교대한침례회는 해외선교회 소속 통일선교네트워크(N2KM) 부서에서 북한관련 집회와 포럼을 주로 개최하고 있다. 교단 신학교인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북한선교학’을 가르치는 것도 특징이다.⁷ 기독교대한성결교에서는 북한선교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북한선교대회, 북한선교 및 통일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교단에서 총회 내 북한/통일

선교 부서나 위원회를 설치하고 교단 선교회 내에 북한선교 파트를 두어 관리하며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앞서 기재한 각 교단 사역 내용 외에도 다양한 사역들이 교단 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속 교단으로 문의한다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겠고, 이번 북한개발소식의 다른 글들을 통해서도 더 구체적인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비록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반적인 활동이 위축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다시금 이러한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만큼, 북한/통일선교에 뜻이 있는 분이라면 속한 교단의 활동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유익할 것이다.

해외 북한선교현장의 특징

앞에서는 각 교단들의 북한선교사역을 국내에서 일반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주요 교단 선교회들은 오랜 기간 북한선교를 목적으로 한 해외선교사를 파송해왔으며, 선교회 내 지부도 운영하고 있다. 많은 뜻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활동에 직접적으로 동참하길 바라겠지만 북한의 독특한 폐쇄성과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현장 관련된 사역에 일반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타 선교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이 못내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해외 북한선교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1 예장 통합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http://new.pck.or.kr/division.php?part=u-committee> >

2 “제주서 평화통일 소망 기도 시작됐다”, 기독교신문, 2021.12.07.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228>>

3 “GNN, 북한선교 팀사역과 네트워크 강화한다”, 기독교신문, 2019.03.21.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08>>

4 “고신총회, 통일선교원 설립 및 초대원장 취임”, 가스펠 투데이, 2021.01.20. <<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69>> (검색일: 2021.05.11.)

5 “가감, ‘서부연회 북한선교대회’ 성료”, 기독교신문, 2020.07.10. <<http://www.gdknews.kr/news/view.php?no=8487>> (검색일: 2021.05.17.)

6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 3월 기도회 열고 탈북민들과 북한을 위해 기도”, 웨슬리안타임즈, 2021.03.19. <<https://www.kmc-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2>>

7 “한국교회 각 교단 뜻 모아 통일 이후 준비하자”, 국민일보, 2018.12.0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887746>>

차원에서 이러한 제약이 발생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북한을 대상으로 한 현장선교는 불가피하게 타 선교지역에 비해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북한은 직접 방문, 체류할 수 없는 특수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인도적 활동을 제외하면 북한 사람과 그나마 접촉이 가능한 인근의 제 3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이 보통이다. 게다가 북한 선교의 거점이 될 제 3국이라 부르는 지역 역시 대부분 선교활동이 불법화되어 있어 선교사들은 필수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비밀리에 사역을 감당한다.

북한 밖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고 선교의 활로를 개척하는 것 역시 어려운 과제이다. 최근 북한은 엄격하게 국경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오는 북한 사람은 한정적이다. 과거에는 불법 월경자들이 상당수 존재했으나 근래에는 엄격한 관리로 인해 그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다만 노동자나 외화벌이 등을 목적으로 국외로 나오는 허가된 출국자의 경우는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이전 시점 기준으로는 상당한 규모로 파

악된다. 북한의 노동자 파견을 제한하는 대북 제재가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노동자를 파견하고자 애써 왔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다면 다시금 다수의 북한 노동자가 해외로 파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국외로 나온 북한사람들이 있더라도 출국 전 외부인과의 접촉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고, 국외에서도 국가의 감시를 의식해야 하는 경우 많아 이들과 접촉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들의 경우에도 숨어 지낼 것이기 때문에 접촉 자체가 어렵다.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은 결국 보안과 안전 문제로 귀결된다. 신분을 숨겨야 하는 선교사,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선교 대상자와 현지 동역자, 그리고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하는 선교사역은 근본적으로 매우 은밀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외국인으로서, 또 여행자로서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한국의 교회나 성도들의 경우 현장사역에 관심과 참여를 원하더라도

여러 제약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간의 북한선교 현장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접촉이 안타까운 보안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여럿 발생했다. 선교 현장에서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관련 시도는 주의해야 한다.



해외 현장선교를 지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전과 보안 이슈로 제약이 많은 북한선교이지만 현장에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비록 사역의 어려움은 있지만 제 3국에 흩어져있는 여러 탈북자들을 비롯하여 여전히 우리가 접촉하고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북한 사람들이 있고, 불친절한 선교환경으로 인해 한 선교사가 일정 인원 이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다.

물론 북한선교를 위한 현장선교사가 되려면 보통의 선교지의 사례보다 좀 더 복잡하고 신경 쓸 부분이 많다. 일반적인 경우 선교사는 해당 국가에 입국해서 체류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언어를 습득하고 현지인과 접촉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역이 될 것이다. 최근 주요 선교지는 선교사를 거부하거나 사역이 제한된 창의적 접근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선교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구도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사람들을 만나는 일 자체가 큰 미션이기 때문에 선교에 뜻을 품고 출국하기만 해서는 사역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낯설고 아무 연고 없는 이국땅에 적응해야 하는 선교사가 제 3국에서 북한사람을 만나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님들과 단체들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역을 발전시키고 선교의

기반을 닦아왔다. 지금은 고난의 행군 당시보다도 더욱 사역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배 선교사들이나 선교단체에 합류하고 배우며 동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교 환경은 선교사에게 또 다른 형태의 노력과 투자를 요구한다. 북한선교 현장은 안전과 보안에 민감하며 특히 선교 대상자들이 복음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숙하고 서투른 사역, 또는 과욕으로 인한 무모한 사역은 사역 전체를 깨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당연히 기존 선교사나 선교단체에서는 신실한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기를 바라는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 있고 자질을 갖춘 선교사를 선별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낯선 외부인이 갑자기 선교사로서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보도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진중하게 자신을 훈련한 준비된 선교사라면 문은 열려있다. 먼저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한 심도 깊은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탈북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선교현장에서 만날 북한 사람들에 대해 미리 적응하며 훈련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교단 선교부를 비롯해서 몇몇 선교단체들은 북한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오랜 기간 파송해온 만큼 국내외 선교 단체들이나 교단 선교부 등에서 주관하는 국내 북한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가운데 선교회와의 교감을 통해 선교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북한선교 현장의 인적자원개발

오픈도어 현장사역자

한국선교연구원(Krim)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 전체를 아우르는 선교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로 2008년까지 한국교회의 선교사 파송인원은 매년 10%씩 증가하여왔다. 그러던 것이 2011년부터는 2%아래로 떨어졌고 2017년 이후로 1%아래로 떨어졌다. 선교단체의 숫자 역시 2008년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든다.¹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작년 초부터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선교사들이 일시적으로 철수하였고 많은 선교현장의 사역이 위축되었다. KWMA를 비롯한 연합기구들과 단체들이 한국 선교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한걸음 도약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최근 들어 선교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의 주된 이슈는 바로 “선교사멤버케어”와 “선교인적자원개발”이다. 선교에 있어서 인적자원개발이란 선교사의 역량을 키우는 것과 역량 혹은 가능성이 있는 선교사를 발굴하여 파송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적절

1 2020 한국선교현황, <https://krim.org/2020-korean-mission-statistics/>, 2020. 2, 26, 검색일 2021, 5, 20.

한 사람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의 중요성과 적절한 사람을 영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선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교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자가 배출되어야 하고 교회는 헌신자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그 단체의 선교사로 파송되느냐가 그 단체 사역의 성패를 좌우한다. 즉,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일에 성공하면 선교에도 성공할 것이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의 선교는 실패할 것이다.

북한선교현장의 특수성

한국교회의 인식에 있어 북한선교는 여타 해외 선교와 근본적 차이를 지닌다. 한국인의 인식 속에 북한은 우리와 임시로 갈라져있는 나라로서 언젠간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대상이다. 한민족으로서의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며 수많은 이산가족의 비극을 간직한 한 핏줄 형제의 나라이다. 한

선교사를 지망한다면 이 외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북한선교를 위한 선교사라고 해서 일반적인 선교사에 비해 크게 다른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각 선교회마다 선교사 허입 및 파송 기준이 다르고 또 후원 교회 문제 등 여러 가지 개별 케이스가 존재하겠지만 공통된 준비 항목들을 생각해보면 먼저 개인 영성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의 훈련이 가장 기본적인 준비항목이 될 것이다. 건강관리도 중요하다. 제 3국 탈북자들은 그 나라에서도 주로 외진 지역에 흔히 체류한다. 또한 선교사 역시 모든 것이 편하고 안락한 한국에서의 생활,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체력을 잘 챙겨야 한다.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지만 체류할 제 3국의 언어 습득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조선족이나 현지 교포 등 한민족 디아스포라와의 협력을 통해 선교사 본인은 언어가 서툴더라도 사역을 진행하기도 한다. 사역의 주요 대상인 북한 사람과는 언어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적 한계는 결국 사역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사역 외 이슈까지 현지 협력자에게 의존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부작용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언어 습득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후원 교회와의 좋은 관계 설정도 필요하다. 북한선교는 구체적인 선교보고나 후원 교회의 선교현장 방문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교회와의 신뢰 구축 및 선교지에 대한 상황을 잘 이해시키고 파송 이후에도 커뮤니

케이션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후원 교회와의 신뢰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더 많은 북한선교 일꾼이 일어나기를

앞서 국내외 전반에 걸쳐 북한선교 관련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난관을 맞닥뜨리면서 그간 북한선교는 국내외 전반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는 결국 매듭지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넓은 지경을 바라보며 그간 북한선교를 위해 애써왔던 노력들을 꾸준히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중단되었거나 미뤄졌던 여러 사역들이 다시 활기를 찾고 더 나아가 새로운 선교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날 주님의 일꾼들이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지가 어디든 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대적 사명, 민족적 사명을 깨닫고 무릎으로, 또 눈물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길 바란다. 아무쪼록 독자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발걸음에 오늘 소개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눅 10:2)



국교회는 분단 직후부터 북한의 교회와 북한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왔다. 아직까지 해외선교가 생소하던 1970년대 80년대에도 북한을 위한 기도회들이 있었고 북한을 위한 기도회에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이 부지기수였다. 북한선교를 위한 기도회와 집회들에서 “38선이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와 같은 북한선교 복음성가들이 작곡되어 불리기도 했다. 한국에 방송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절 서구교계에 의해 한국에 설립된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 또한 여타 공산권선교와 더불어 북한선교의 사명을 갖고 건립된 것 또한 한국교회의 이러한 특수성에 기인한다.

선교사의 사역에 있어 선교현장의 언어와 문화습득은 선교사역의 기본이면서도 선교사가 사역 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민족으로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 없는 선교지이다. 북한선교의 주 무대가 되었던 중국의 동북3성에는 1992년 한중수교 당시 200만 명에 가까운 조선족 동포들이 있었다. 중국 동북지역에 교회가 다시 서기 시작하였을 때 문화대혁명을 버티고 살아남은 조선족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이

교회재건에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였고 당시 성도들 중 많은 수가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었다. 또한 당시 조선족은 중국인이면서도 민족적 정체성은 남북한과 공유하는 한중이중언어구사자 집단으로 본인들도 북한선교를 하였고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중국의 동북3성은 한국과 거리가 가까운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다. 주요 도시가 한국에서 2시간이면 닿을 수 있고 항공권도 다른 나라를 가는 것에 비해 매우 저렴하였으며 주요 도시에 수많은 정기편이 운항하여 중국의 동북부는 한국에서 가장 가깝게 다닐 수 있는 외국이었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하여 한인 교포사회도 발전하여 1990년대 - 2000년대 수많은 한인사업체와 한인교회가 동북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였는데 이들은 한국교회의 조선족선교와 북한선교에도 큰 힘이 되었다. 실제로 당시 중국에 거주하던 평신도 사업가들 혹은 주재원들이 선교사들과 탈북자들을 후원하였고 직간접적으로 탈북자사역에 동참하였다. 중국으로 어학연수 혹은 단기선교를 온 기독교학생들 또한 선교사들의 도우미를 자처하였고 그중 일부는 북한선교에 직접 뛰어들기도 했다. 재미교포 사업가로서 중국에 정착하여 사업을 확장하던 스티븐김 회장, 어학연수생이었던 정베드로 목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위의 두 사람은 모두 당시 평신도 신분으로 중국에 거주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탈북자들의 참상을 접하고 탈북자들을 돕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공통점

이 있다. 이후 시간이 흘러 현재는 두 사람 모두 북한선교계의 지도자가 되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선교의 바람이 한창불어 한국의 선교사들과 단기선교팀 역시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같은 시기 북한의 기근과 식량난으로 인하여 수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다. 당시 동북지역에서는 조선족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 수많은 사역자들이 배출되고 있었다. 그 시절은 정말 북한선교현장의 인적자원이 넘쳐나던 시기였다. 한국선교사들은 조선족 성도들과 더불어 수많은 북한주민을 도우며 복음을 전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역사와 간증이 생겨났다. 이는 곧바로 한국교회에 보고되었고 이에 은혜를 받은 한국교회가 북한선교를 지원하는 선순환이 일어났다.

북한선교현장 인적자원개발의 위기

200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의 사회통제 시스템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선교사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다. 올림픽을 기점으로 주숙등기제도가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한다. 주숙등기는 비자문제와 더불어 중국거주 외국인들을 가장 골치 아프게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에 따라 모든 주민은 거주지의 파출소에 거주등기를 하여야 한다. 내외국인 할 거 없이 여행지에서 숙박을 할 때에도 머무는 곳마다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는 공안국 전산에 등록되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된다. 과거

에는 돈만 있으면 아무 제약 없이 기차를 타고 중국 전역을 누빌 수 있었다. 언제부턴가 1등 침대칸열차의 표 구매 시 신분증 등록이 요구되더니 2010년대 들어 모든 기차표 구매 시 탑승자의 신분증등록이 필수가 되었다. 2010년대 중반 들어 장거리버스의 탑승자에 대해서도 신분등록이 시작되었다. 이는 선교사들과 탈북자들의 거주와 여행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동북3성에서 북한선교를 하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되어 현재는 극소수의 선교사들만이 현장에 남게 되었다. 2010년 전후로 북중 양국이 합동으로 국경통제를 강화하였고 북한내부의 환경도 변화되어 탈북자의 수가 급감하였다. 2007년부터 한국에서 시행된 조선족에 대한 방문취업제도와 2011년 동포비자(F4)확대로 인해 조선족들의 한국 러시가 본격화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내 북한선교의 전진기지인 동북3성 조선족 교회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특히 조중 국경오지의 많은 조선족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중국내의 사회통제 시스템 강화, 탈북자 감소, 조선족의 해외유출이라는 3중고로 인해 북한 선교현장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최근까지 한국교회의 많은 사랑받고 있는 유명한 강사의 북한선교의 스토리들은 대부분 2-30년 전의 간증들이며 북한사역과 관련하여 출판되는 책들과 간증들 또한 대부분 최근의 이야기가 아닌, 2010년 이전의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북한현장사역의 특성상 현장의 보고와 간증들이 실시

간으로 한국교회에 전달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전에도 북한선교의 핵심후원자와 동역자들은 현장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대략이나마 들을 수 있었다. 최근에는 핵심후원자와 동역자들에게도 실질적 현장의 이야기들은 자주 들려오지 않는다. 그나마 사역을 이어가는 선교사들도 북한으로 돌아갈 사람들에 대한 사역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한되게나마 이어가는 사역은 남한 행을 목표로 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소위 “구출사역”과 중국에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들에 대한 소위 “평강공주사역”이 제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한 행 탈북자와 중국거주여성들은 모두 북한 출신이기는 하지만 지금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사역은 넓은 의미에서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선교로 볼 수 있지만 북한 주민과 북한내부에 접근하는 사역으로 볼 수 없다. 북한 내부를 향한 선교적 공략은 극히 일부의 단체와 선교사들을 통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역은 예전과 같이 오픈된 대규모로 진행되지 않고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일반 북한 선교현신자와 후원자들 혹은 언론과 연구자들에게까지도 알려지지 않는 상황이다. 즉, 북한 내부에 대한 사역의 정보 유통이 단절되고 이로 인해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 북한선교 현신자와 후원자 발굴의 중요한 동력을 잃게 만드는 악순환이 북한선교계에 이어지게 된다.

북한선교현장 인적자원개발의 기회

북한선교현장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한으로의 탈북자 유입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2020년, 2021년 코로나로 인한 특수상황은 논외로 함),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와 통일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고 있다. 새로운 북한선교단체들의 출현, 일부 북한선교단체에 대한 후원금 증가는 북한선교를 위한 물적 자원이 건재함을 보여준다. 유튜브에 공개된 수많은 북한선교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모습, 최근 북한선교 관련 출판물, 북한선교-통일관련단체들의 세미나, 포럼과 같은 행사들의 증가는 북한선교의 문화적 자원과 지적자원 또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변화된 환경에서 한국교회 북한선교의 성패는 물적 자원, 문화적 자원, 지적자원이 아닌 인적자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북한이라는 땅과 제3국을 방문하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선교적으로 접근함에 있어 이렇 때일수록 창의적 사역방법과 역량 있는 사역자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앞서 밝혔듯 우리 북한선교계가 사람을 키우는 일에 성공하면 북한선교에도 성공할 것이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의 북한선교는 실패할 것이다.

북한선교현장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 여타지역과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단체의 경우 선교단체의 역할은 훈련, 멤버케어, 행정적 지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현장사역의 인프라 제공에 국한

된다. 선교사가 재정적으로는 파송교회와 후원교회 후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 할 수밖에 없다. 교회와 개인의 후원으로 유지되는 선교사의 삶과 사역은 교회와 선교지의 동행이라는 측면에서 선교적으로 큰 유익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선교현장의 보안유지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선교사는 후원자들과 동역자들에게 자신의 삶과 사역을 공유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 사역의 일반적 보고의 경우 문제가 덜하나 재정이 소요되는 특별한 사역의 경우 재정지원을 위해 교회의 특별한 승인이 필요하고 선교사는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교회가 함께 하는 프로젝트이므로 교회 내 성도들을 위한 사역의 구체적인 소개도 이루어지게 된다. 보안과 관련하여 교회의 회중에게 아무리 주의를 준다하더라도 선교보고를 듣는 교인들도 어쨌든 익명의 다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선교사가 보안훈련이 되지 않은 교회에 보고를 하는 한 보안에 있어서 취약한 상황에서 사역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공산권 선교에 노하우가 있는 일부 선교단체가 교회에 대한 선교보고와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동시에 선교사들의 현지생활과 사역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사역을 위한 지원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들의 보안유지의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는 지원이며 북한선교현장에 얼마 남지 않은 선교사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원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선발단체들의 전문성을 배우는 단체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선교를 위해 잘 준비

된 선교사후보생이 이러한 전문단체를 만난다면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여름 한국교회의 선교동원을 논의하기 위한 한 포럼에서 KMQ선교지의 발행인인 성남용 목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선교 동원의 수원지는 선교지다.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선교가 시작된 것처럼, 교회가 선교지의 부름에 응답하는 선교 동원이 되게 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파송국의)교회가 선교를 동원하고, 교회가 보내고, 교회가 선교 사역을 주도했다. 앞으로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동원하고, 선교사를 부르고, 사역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중략)... 교회보다 더 중요한 선교 동원의 수원지는 선교지다.” 이 이야기는 북한선교 현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선교사가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게 되었고, 일부 권한이 현장사역자에게 이임되었다. 더욱이 선교현장의 통제가 강화되어 외국인들의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북한선교현장의 상황에서 현지인 리더십의 발굴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가 되었다. 선교현장의 현지인 사역자들이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닌 리더로 세워질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현지인 사역자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일부 권한의 이양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경력전환 선교사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경력전환선교사란 선교회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헌신한 후,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나님나라의 다른



〈민족복음화를 주제로 열린 엑스플로 74 대회 모습〉

영역에 기여하는 선교사들을 말한다. 이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단어로 “프로틴 커리어(protean career)”가 있는데 이는 의지에 따라 스스로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화시켰던 그리스 신화의 프로테우스(Proteus)처럼 은퇴한 전문가들의 특별한 경력 또한 새로운 요구에 맞춰 변화시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실례로 강경무슬림선교지의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 중 철수 이후 비거주선교사 (NRM; Nonresidential Missionary)로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선교지를 지속적으로 섬기는 선교사들이 무슬림권 선교계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북한선교현장에도 적용된다. 북한선교현장을 떠난 소위 비자발적 출국자들은 비자발출국 유형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분된다. 추방당한 선교사로부터 위협의 단계가 증가하여 떠나게 된 선교사, 그밖의 위협의 상황과 건강, 심리적 어려움 등의 상황이 맞물려 부득이하게 현장을 떠나게 된 선교사들이 있다. 이들의 경험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 북한선교의 다른 영역에도 남아있다. 가령 탈북자들의 탈북루트인 동남아국가들로 사역지를 옮겨 사역을 이어가는 선교사, 현장 사역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정착 탈북민 사역을 이어가는 선교사들이 있다.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 중 추방당한 선교사를 제외한 다른 선교사들은 시간이 흐른 후 조심스럽게 북한선교현장에 접근할 기회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이 과거에 사역하던 현장을 여러 모양으로 도울 기회가 생길 것이

다. 이러한 경력전환비거주선교사(Protean Nonresidential Missionary)는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선교현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매 시기마다 문제가 있었고 교회는 그것을 극복해왔다.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선교계에 어려움이 없던 시절은 없었다. 70년대 80년대 탈북자 한명 없던 시절에도 한국교회는 북한선교를 위해 수만 명이 모여 기도했다. 그것이 귀한 사역이었다. 씨앗선교회, 기독교북한선교회와 같은 북한 선교단체를 만들었고 극동방송, 아세아방송을 통해 북한으로 복음의 라디오 전파를 쏘았다. 일부 진보적 기독교인들은 급진적 통일운동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도 했다. 혹자는 “북한선교의 봄날은 갔다”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 북한선교의 봄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도 한국교회의 북한을 향한 마음은 뜨겁다. 기독교 케이블방송들을 통해 북한선교 관련정규편성 프로그램들이 제작되어 방송되고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북한선교의 열매들이 들려주는 수많은 간증을 들을 수 있다. 북한을 위한 기도회와 교단과 기관들의 북한선교를 향한 관심 또한 확산되고 있다. 북한선교현장의 최전선을 위한 인적자원들이 개발되며 그들이 건강한 전문 단체들과 연결되고 훈련되어 사역을 이어가기를 기도한다. 🙏

총회세계선교회(GMS)의 북한선교와 선교동원

2016년 비자발적 철수 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정베드로 (북한사역글로벌네트워크(GNN)공동대표, 북한정의연대 대표)

*본 글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제3국에서 북한주민들을 돌보며 사역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세계선교회(GMS) 사역자들과의 교류와 활동을 북한선교 동원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정리한 글임.¹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복음전도와 선교사명은 현장에서 증거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선교는 현장에 들어갈 수 없고 생각 되는 대로 쉽게 전도가 되지 않는 곳이

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중국을 통한 북한선교와 내지 선교를 지향한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북한현지의 소식을 탈북자들로부터 듣고 중국 동북삼성과 각 지역에 나아가 북한선교에 헌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돌보는 외국인 선교사들도 불법적으로 간주하여 체포·구금하거나 강제수사 후 추방하기 시작하였다.

본 선교회의 북한선교사역이 국내에서 공동체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2016년 이후 중국당국으로부터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북한사역자들과 그러한 선교사가정을 중심으로 기도모임을 시작하는데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철수한 사역자들이 현지에 접근을 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을 돌보고 제3국의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모임으로 시작되었다.

1 GMS(Global Mission Society)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따라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의 선교 사업을 위임받은 교단선교 단체이다. 현재 교단 내 유능한 선교사 선발, 훈련, 파송 및 관리, 교회와 노회 선교부의 활성화, 효율적 선교활동을 행정적인 지원, 선교사의 복지 등 선교에 관련한 모든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당시 GMS는 철수한 선교사와 각 가정들을 재 배치하고 현지의 여러 상황들을 파악하고 수습 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사역자 기도모임은 매일 정기모임을 통해 현장에서 20여 년 동안 쌓인 북한사역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하나의 팀으로 변화 성장해 가면서, 가까이 온 통일과 미래에 찾아올 복음적 통일을 함께 꿈꾸며 기도하고 교제하였다.

그리하여 2016년 10월 초 암사동 대신교회에서 공식화된 기도모임을 갖고 가칭 ‘북한사역국내팀’이라 정하고 GMS의 비준을 받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국내외에서 흩어져 활동하는 GMS 북한선교사와 관련 목회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지부모임 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중국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북한사역자들과 선교사 다섯 가정이 중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북한사역자 모임과 기도회를 통해 사역자들의 상하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소망을 가지고 북한을 위해 더 기도하고 다시 회복하는 마음들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모임을 통하여 각 선교사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사역을 공유하고 교제하면서 기도로 하나 되도록 인도하셨다. 그러나 모든 기도제목과 사역의 내용은 보안을 준수하고 비공개로 하며 오직 사역자들의 안전을 비롯한 각 사역현장의 보호와 부흥을 중심으로 기도하였다. 그리고 GMS 산하의 북한지부 설립을 위하여 정관을 통해 사역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원팀으로써의 북한사역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였다.

2018년도에 들어와서는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총회와 교단적으로 통일선교 정책이 더 정교하게 수립 되어야 할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사역자들의 북한지부 설립과 북한사역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이 더욱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사역국내팀 사역자들은 본 교단 2018년 세계선교대회를 앞두고 북한·통일선교 정책 소개와 복음적 통일을 위한 비전과 사역 협력 방안 제시, 국내외 사역자들 간의 사역 공감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NK포럼’을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2018년 2월에 이틀간의 ‘NK포럼’(강일교회)을 통해 북한·통일사역 전문가들과 GMS 북한선교사들이 함께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갖고 북한·통일 선교에 대한 정책과 사역을 소개하고 나눔으로써 본 총회의 통일선교 사역의 로드맵을 구상할 수 있었다. 이 포럼을 통해 구성된 주요한 현장사역으로는 북한·해외 탈북자인권, 북한·제3국의 북한주민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역, 복음지도자양성·탈북민양육과 동원사역 등으로 배열되었다.

한편 교단에서는 총회세계선교 111주년을 맞아 2018년 6월 25일부터 4일간 복음·열방·다음세대를 표어로 GMS 2018세계선교대회(대전 새로남교회)를 개최하면서 13개 선교영역의 네트워크 설립을 추진하였다. 여기에 맞추어 대회 참석기간에 약 40여명의 북한·통일선교 사역자들은 합동교단 총회세계선교회(GMS) 산하에 북한



〈GMS의 통일목회, 북한선교세미나에서 발표중인 정베드로 목사(좌측 발표자)〉

지부 설립청원 및 북한사역글로벌네트워크(Global Network for North Korean Ministry, GNN) 창립총회를 가졌다.

현재 GNN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을 중심으로 교회가 지향해야 할 북한사역의 방향을 수립, 제안하고 국내외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하여 가장 효과적인 북한사역을 실천하는데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복음적 통일준비, 북한내지교회 개척, 통일 후 선교대비를 위하여 북한사역을 위한 기도와 헌신의 사역자를 세우고, 사역자 및 회원 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역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회원은 본 교단 GMS 소속 북한지부 회원들을 포함한 본 교단 국내외의 사역자이며 각각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정기적인 모임과 교류를 갖고 북한사역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한편 본 교단 소속이 아니어도 초교파적으로 북한선교에 헌신하고 단기선교사로 지원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GNN 자체

LMTC(Local Missionary Training Course, 지역 단기선교사 훈련원) 과정이 개설하여 실행중이다. 수강생은 1년 2학기(1학기 12주)과정을 밟고 1주일 선교현장 훈련을 마치면 수료증을 부여받는다(“통일소망선교회”홈페이지참조).

또한 본 교단 소속 목회자와 평신도의 경우 GMS 총회세계선교훈련원(GMTI)과 GMS LMTC의 과정을 통해 훈련을 받고 각 국 선교사로 파송 받을 수 있다(“총회세계선교회 GMS”홈페이지참조).

2018년 GMS북한지부와 GNN을 설립하며 의미 있게 가진 대외적인 행사로는 UN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여 당해 11월 25일부터 3주 동안 실행한 ‘자카르 코리아(Zakar Korea)’대회이다.²

교단을 초월하여 GNN을 포함한 약 40여개의 북한·통일선교 사역단체와 교회들이 연합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심각히 우려하고 ‘박해받는 북한주민들을 기억’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오로지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이 기간 동안 그림전시,거리음악회,국제포럼,세미나,기자회견,거리캠페인,기도회 등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시민사회에 북한인권문제를 잊지 않도록 촉구하였다.

당해 12월 10일 북한인권 국제포럼에서는 세

2 ‘자카르’(zakar)는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는 뜻으로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주의를 더 기울여서 묵상하고 회상하고, 자기 스스로를 권면하여 일깨우는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영적 행위를 가리킨다(창8:1,신32:7,겔6:9, 민15:40 외).



계인권선언이 천명하듯이, 천부의 ‘인권’을 인정하는 것이 ‘평화’의 기초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한반도에 도래하려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이 중단되어야 하고, 남북 인권대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의 발전과 올바른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종교박해를 비롯한 인권침해가 중지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이어 12일에는 GNN주관으로 <북한사역포럼/강일교회>을 개최하여 “북한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통해 한국교회가 북한의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는 잊지 않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할 것을 발표하였다. 한국교회가 북한의 신앙과 자유, 복음적 통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고 교회가 먼저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일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국교회의 향후 과제로는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 개선되면서 북한이 개방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중국의 교회와 중국의 종교정책을 위한 기도가 요구된다. 현재나 장래에 북한의 기독

교가 중국 기독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중국 교회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일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북한선교를 위한 중국 교회와 지도자, 특별히 조선족 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이 많이 개발되고 개척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거 선교사 파송기관의 사무적이고 획일화된 행정일변도의 정책과 비보안성을 지양하고 지혜롭고 장기적인 방안을 제3국에서 찾아보다 더 효율성 있는 매뉴얼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을 비롯한 제3국에서의 북한사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과는 매우 다르게 표출되고 있고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북한은 3중고라 하여 코로나와 대북제재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더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북한내지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으로 통일의 물꼬가 열릴 수 있음을 믿고 북한선교 헌신자들이 많이 준비되어야 할 시기이다.

지금이야말로 더욱 통일을 준비하고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사역들이 일어나야 할 때이다. 북한선교는 특별히 기도만하고 세미나만 많이 참석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가까이 찾아온 대한민국에 입국한 3만5천명의 탈북민들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이분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와서 어떻게 정착해가는지,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안에 교단을 초월하여 북한사역헌신자들로 구성된

통일선교 연합과 연대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체 연합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탈북민들이 목마르고 곤고할 때마다 전국 어디에서나 북한선교 교회와 헌신된 공동체와 접촉할 수 있도록 우물과 같은 장(場)이 많이 세워져야 한다.

탈북민들은 가까이 온 통일의 리트머스이며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실전(實戰)의 대상이다. 비록 북한선교를 위하여 북한 현지에 갈수 없으나 통일한국을 미리 경험하며 통일 후의 사회를 질서 있도록 이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선교를 희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선교지망생들은 우선 탈북민교회와 검증된 탈북민 공동체와 리더십을 찾아가 배우고 섬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피드백을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자신 안에 내재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거시적인 한반도의 복음통일과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세와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자세가 북한사역 헌신자들의 마인드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 통일사역은 개인이나 한 교회와 공동체만의 일이 아닌 우리민족 전체의 운명이고 한반도와 땅끝선교의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북한사역 예비자와 헌신자들은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서 다루는 현재의 대북정책을 연구하고 배우면서 북한이 대화와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감사하게도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원칙이 발표되며 기존 북미정상(2019년 2월 싱가포르공동선언) 및 남북정상(2018년 4월 판문점선언)간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북한이 한미 양국 정상회담의 대화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익숙한 자세와 준비로 복귀해야 할 차례이다. 이에 다시 한 번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재개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실천 사항이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특구지역을 개방하고, 나아가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바라고 기도한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약속의 현장에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준비되기를 기도한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는 더욱 기도가 필요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고 구원받을 권리가 있는 북한 동포들과 더불어 모든 한반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도한다. 북한선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확산된다. 지금도 북한의 골방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는다. ☺

한국교회에서 고신총회통일선교원의 역할

정 종 기 (고신총회통일선교원 원장)

I. 들어가면서

분단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현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위기 일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지요. 정부가 아닌 한국교회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의 기도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더 넓게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분단 이후 75년간 이어져 내려온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와 함께 북한선교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1973년 ‘씨앗선교회’가 세워져 한국교회의 북한선교가 시작 되었고, 뒤를 이어 많은 북한선교단체들이 세워져 지금까지 북한내지와 탈북자들 그리고 탈북민선교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러한 사역에 맞추어 학문적으로 체계를 세워나갔습니다. 1999년에 아세아연합신

학대학원에 북한선교학과가 세워진 이후 숭실대 대학원에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가 세워지고, 올해에 충신대학원에 평화통일개발대학원이 세워졌습니다.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규모와 체계를 갖추어가던 중 고신총회에서 교단북한선교의 창구일원화로 ‘고신총회통일선교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고신총회통일선교원에 관한 글로서 고신통일선교원이 세워지기까지의 배경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과 나아가 한국교회 안에서 통일선교원의 역할 등을 적어 나갈 것입니다.

II. 고신총회의 북한선교

고신총회에서 통일선교원을 세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 총회는 북한선교를 아우르는 창구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단 북한선교 컨트롤타워가 없었

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단 내 개교회들이 북한선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대형교회들은 교회 내 탈북민부서를 두어서 탈북민선교를 하였고 개교회들은 타교회 혹은 북한선교 단체와 협력하여 북한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단차원에서 교단전체를 이끌어 가는 컨트롤타워는 어느 곳도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처음으로 고신총회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기구를 세웠다는 것이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물론 이런 기구가 세워지는데 까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신총회통일선교원을 소개하는 있어서 고신총회의 북한선교역사를 간략하게 적어 보는 것은 북한선교를 지속해왔으나 그 가운데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보여주고자 합니다.

고신총회 북한선교역사

고신 총회가 북한 선교를 처음 언급한 것은 1975년 9월 25일입니다. 그 당시 부산노회장이던 이근삼목사가 부산노회의 건의안을 통하여 총회에 북한선교를 총회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이 건은 선교부에서 연구하여 총회에 북한선교특별기구를 두기로 가결합니다. 1976년 7월 8일 고려신학대학에서 열린 ‘교단발전 연구 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는 북한선교를 특수선교로 규정합니다. 그 당시 ‘국내외 선교정책’에서 내국선교, 해외선교, 그리고 공산권선교로 구분하고 공산권선교를 “특수선교의 대상임으로 여기에 대하여는 특별한 기구를 설치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분석, 종합

계획을 담당케하고 방송 선교나 각 방면을 통한 성경 및 전도지 전달 등의 방안을 고안하여 적극 추진케 하고 또한 미래를 대비하는 특수요원 확보와 훈련, 경제적인 장기 대책 등을 수립해야한다.”로 정의 내렸습니다.

이후 1979년 제29회 총회에서는 오병세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산권선교 대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조직하고 1980년 제30회 총회에서 명칭을 바꾸어 ‘공산권 선교위원회’라 하고 본 위원회를 계속 존속키로 총회 허락을 받습니다.

1988년에 ‘통일 논의 대책연구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두고 교단은 남북통일에 대해서 집중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89년에는 총회 내에 두 개의 유사한 기구가 있음에 부담을 느낀 공산권선교위원회는 통일논의 대책연구위원회와 공산권선교위원회를 통합하기를 청원하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때부터 북한선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고신총회의 북한선교의 실제적 시작은 1989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 제40회 총회부터는 북한선교는 위상을 달리합니다. 40회 총회 때 공산권선교위원회에 전담간사를 두기로 청원하고 허락을 받아내었기 때문입니다. 1992년에는 공산권선교위원회는 조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직 내에 3개의 분과를 두었는데 하나는 중국분과, 둘째는 베트남분과, 셋째는 북한분과이었습니다. 1993년에는 성서공회를 통해서 북한에 성경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총회에 자금모금을 청원하고 허락을

얻었습니다.

1994년은 본 교단이 한국기독교총연합(이하 한기총)과 연계하는 북한선교를 하게 된 해입니다. 한기총의 ‘남북교류 협력회’와 관계를 맺고 강규찬 목사를 교단대표로 참석하게 하여 교단에 북한선교 연구 정책과 활동을 보고하고 계속 협력기로 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북한선교 방법은 주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선교를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선교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오직 북한선교는 순교적 각오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에는 북한교회재건위원회로부터 교단에 배정 받은 60개 교회를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1997년에는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의 굶어 죽어 가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하여 전국 교회에 6.25주일의 주일헌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전달하였습니다.

1998년에는 탈북자를 위한 북한 선교의 초점이 바뀌는 해였습니다. 총회가 김한중 선교사를 중심으로 북한교회와 탈북한 자들을 교육하는데 힘쓰는 것과 함께 효과적으로 북한에 선교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데, 김한중 선교사를 호주 국적을 취득케하여 선교의 제일선에 내세운 것입니다. 총회북방선교위원회는 2000년부터는 북한선교위원회라 명칭을 변경하고 활동하게 됩니다. 2001년에는 주로 북한 동포를 지원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함경도 어린이 18,000명에게 매일 빵을 공급하는 것으로 총회산하 교회가 동참하였습니다. 2003년은 북한 지하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기 위한 북한선교주일을 제정합니다. 그해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현재 드림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2006년에 들어서 교단 북한선교는 침체기로 들어섭니다. 매년 하던 일을 지속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2012년에는 북한선교위원회가 북한 및 다문화선교위원회로 변경됩니다. 2014년에 통일한국대비팀이 생기고 총회 내에 ‘북한 및 다문화선교위원회’와 ‘통일한국대비팀’을 합쳐서 2016년에 ‘통일한국대비위원회’가 총회 내 상임위원회가 되어 지금까지 교단의 북한선교의 리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고신총회의 북한선교의 문제점

고신총회는 북한선교를 일찍부터 시작했지만 그 동안 했던 일에 비해 크게 도약하지 못했던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 우리교단의 아픔을 분석해 넣은 것은 타교단의 북한선교 혹은 통일선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① 가장 큰 문제는 총회에서 북한선교를 해외선교와 분리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남북한의 정치적 특수한 상황에서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어서 공산권선교로 시작했지만 어느 시점이 지날 때 충분히 북한선교는 특수선교가 아니라 해외선교의 하나라는 것을 결정해 주고, 교단의 총회해외선교부와 함께 일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물론 고신총회는 총회해외선교회에서 2010



〈고신대에서 진행된 수잔 솔티 (Suzanne Scotte) 박사 초청 북한바로알기 특강〉

년부터 해외선교로서의 통일선교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에 총회 이름으로 북한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분리된 정책이 북한선교를 왜곡 및 축소시켜 왔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② 북한선교 위원회가 교단교회에 알려지지 않았습니 다. 총회 내에서 비중이 높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되다보니 위원회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위원회가 북한선교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산하교회는 북한선교에 대한 것을 몰랐기에 북한선교에 동원하기 어려웠습니다.

③ 교단차원의 북한선교가 너무 전문성만 띠어 제대로 보편적인 북한선교를 교회의 교육과정에 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교단 내에서 북한선교 전문가를 키워내지 못했고, 동원시키지 못했습니다.

④ 교단의 북한선교가 전문적인 리더십보다는 몇 명의 리더십에 이끌려 갔습니다.

⑤ 연합과 협력의 장을 만들지 못하고 여전히 비밀주의, 특수주의로 나갔던 것입니다.

III. 고신총회통일선교원

고신총회통일선교원은 2019년 제69회 총회에서 고신의 통일선교에 대한 중심기관이 세워지길 원하는 여러 안건에 대하여 총회 상임위원회인 통일한국대비위원회와 해외선교부인 고신총회 세계선교회가 연합하여 연구하여 1년 후에 보고하기로 한 후, 2020년 제70회 총회에서 설립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신총회 통일선교원(이하 통선원이라 합니다)이 세워진 가장 큰 이유는 교단차원에서 북한의 복음화입니다. 한국교회의 관심은 한반도의 전쟁의 위험이 아니라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통일선교원을 세운 것입니다.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북한선교학교가 세워지고, 자원하는 선교사들과 훈련생들을 훈련하기 위한 훈련원이 세워지고, 북한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며, 나아가 범교단적인 연합을 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한국에 들어온 북한주민들과 북한디아스포라들을 위한 선교전략을 세워 이들을 통해 북한을 복음화 할 것입니다.

통일한국대비위원회와 KPM의 역할

고신총회통일선교원은 총회상임위원회인 통일한국대비위원회와 해외선교부인 KPM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통일대비위원에서 위원장, 서기, 회계 그리고 KPM에서 본부장, 훈련원장, 연구국장이 상임위원으로 들어와 통일선교원의 모든 의사를 결정합니다. 물론 이

조직에는 원장이 회의를 주관하는 체제입니다. 총회 내의 두 기관이 의사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기관은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각각의 고유한 역할은 하되 협력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일선교원은 플랫폼과 허브의 기능을 하고, 나아가 센터의 기능도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모든 일을 모두가 협력하여 사역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일대비위원회의 고유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역(드림학교 지원, 통일선교세미나 개최, 통일선교현장방문, 총회 상정된 안건 처리)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② 전국교회 동원사역(블레틴 발간) ③ 노회에 통일선교부 개설하여 노회 통일선교부원들 교육 ④ 타교단 통일선교위원회와 네트워크를 위한 포럼 또는 워크숍개최 ⑤ 북한선교 기도책자 제작 및 배부(복있는 사람 큐티 책에 북한선교 기도제목 삽입 등). 2021년 통대위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 노회의 북한선교(통일선교)와 관련된 부서들과의 연석회의, 둘째는 타교단의 북한선교(통일선교) 위원회와의 연석회의, 셋째는 탈북민이 있는 교회들의 담당자들을 위한 세미나, 넷째는 관심 있는 교단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PM의 고유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북한선교사를 위한 동원, 교육, 훈련, 파송, 케어를 하는 것. ② 북한선교연구 ③ 각 지역부를 통한 외국인들 교육하여 북한선교사로 파송 ④ KPM의 선교훈련국과 협력하여 '북한선교학교' 개설

⑤ KPM선교훈련 과목에 북한선교 이해 과목 개설 등입니다.

고신총회통일선교원 사역

통일선교원은 통일대비위원회와 KPM사역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동시에 통일선교원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총회의 통일선교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이끄는 사역입니다. 고신총회는 탈북민대안학교(드림학교, 장대현학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를 교단차원과 개교회차원으로 돕고 있고, 탈북민교회(뉴코리아교회, 장대현교회)가 있으며, 개 교회에 탈북민지원사역과 탈북자 구출사역, 그리고 북한선교사들과 단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적 북한선교를 교단차원으로 묶어서 선교하며, 북한복음화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동원사역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해외선교에 대다수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통일선교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통일선교를 위한 교단 교회를 깨우는 사역이 제일 우선입니다. 교회를 동원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약 6만교회입니다. 그 중에 북한선교(통일선교)하는 교회가 약 800개 교회가 동참 합니다. 전체에 약 1.2%가 북한선교에 동원된 것이지요.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연구국에서 고신교단 교회의 북한선교 동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작년 2월과 6월에 하였습니다. 그때 참여한 교회가 447개 교회로 전체 2,100개 교회 중 23.3%가 응답했습

니다. 447개 교회 중 북한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는 약 12%정도입니다. 447개 교회 중 12%이면 약 54개 교회가 동참한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물론 54개 교회가 여러 질문에 대한 복수 응답이어서 54개 교회보다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평균치를 낸 것이기에 정확한 숫자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설문 내용을 보면 '북한선교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가 11.23%, '북한선교를 위한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가 10.14%, '탈북민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가 10.96%, '탈북청소년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가 4.11%, '탈북민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가 3.84%였고, '아직 없습니다'가 71.78%였습니다. 교단 내에 북한선교동원이 미미한 가운데 통일선교원은 개 교회에 북한선교의 당위성을 알리고 우리 동족인 북한을 품고 땅 끝까지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는 파송사역입니다. 우리교단 세계선교부인 KPM이 올해부터 북한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선교에 북한을 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일선교원은 KPM과 협력하여 북한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북한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동원, 훈련, 파송, 돌봄이 이어져야 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는 국내에서 이주민사역부에 속하여 탈북민 대상사역과 함께, 북한 내지(북한내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외비자가 있어야 함)로 들어가는 사역을 할 것이며, 나아가 파송 동원하기 위해서 해외에 흘

려진 한인디아스포라와 연합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교단 선교사들이 헌신하여 세운 해외 외국인 성도들을 선교 훈련시켜 북한으로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북한 디아스포라(해외로 나간 탈북민성도들)를 선교 훈련시켜 북한 내지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도 포함됩니다.

넷째, 탈북민사역입니다. 탈북민사역은 한국교회가 해야 할 숙명적 사역입니다. 한국교회가 북한내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북한 사람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선교대상입니다. 탈북해 중국에 있는 많은 북한주민들을 구출하고 돌보고, 그들을 국내로 데리고 들어와 정착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는 선별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으로 들어온 약3만5천명의 탈북민들에게 복음전하는 사역과 함께 그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끄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교단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탈북민사역 가운데 몇 가지 추진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탈북민들을 위한 성경공부교재 개발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탈북민교회 개척입니다. 지금 천안지역에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들이 이런 사역을 동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섯째, 연합운동사역입니다. 북한선교는 한 교회나 한 교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고신총회 통일선교원 설립 및 원장 취임 예배 기념 사진〉

국교회 전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통일선교원이 중심이 되어 교회연합사역과 사역단체 연합을 이루고 나아가 교단 연합에 앞장 설 것입니다. 교회연합이란 우리 교단 내에 있는 교회들 중에 통일선교를 하는 교회들을 네트워크 하여 사역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통일선교원은 플랫폼과 허브 그리고 센터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IV. 결론

고신총회통일선교원이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아직 한국 교회가 하지 못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총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를 전 노회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청원을 하였습니다. 교단 전체 교회를 통한 설문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통해 전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를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총회에 청원한 것은 35개 노회에 북한선교부 또는 북한선교특별부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을 청원한 이유는 현재 두 개 노회에 북한선교부가 있고, 1개 노회에 북한선교 특별부가 있습니다. 전 노회에 북한선교부나 특별부가 생기면 부서원들을 통해 노회에 소속된 교회에 북한선교 동원과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선교부 부서원들을 정기적 교육시켜 통일전문가로 만들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제 북한선교는 총회가 중심이 되어 소속된 교회를 동원하여 합니다. 교회를 북한선교에 동원하려면 교단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단은 상임위원회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는 총대원으로서 최대 3년으로 그 임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단에는 북한선교의 전문성을 띤 북한선교 전문기구가 세워져야 합니다. 고신총회는 이런 북한선교전문기구로 ‘고신총회통일선교원’을 세운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선교와 북한복음화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교회는 연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단의 북한선교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각 교단은 북한선교 혹은 통일선교 전문기관을 세워 네트워크를 하여 복음통일을 이루어 나갑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남북한선교와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 소개

최영웅 (예장통합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1989년 12월 초 지중해의 몰타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조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과 소련의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는 냉전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협력과 공존의 시대로 들어서는 몰타선언을 했다. 세계를 둘로 갈라놓았던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대한민국은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1990년에 공산권의 중주국이었던 소련과 수교를 맺었고, 1992년에는 북한과 혈맹관계인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그러나 우리의 동족인 북한과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7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원수 같은 형제로 적대시하며 지내오고 있다. 한반도는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의 고도가 되었다. 2017년에는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휘몰아쳤다.

2018년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에는 평화의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해 2월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

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였고, 4월 27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이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는 화해와 평화, 공동번영의 시대로 가기 위한 후속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해 9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의 끊어진 길을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을 이어주는 철길과 도로를 통해 사람과 물자가 오가고 정보가 공유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2019년 2월에



〈올해 2월에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북한선교정책세미나 모습〉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었고, 그 여파로 2년이 넘게 남북관계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월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다시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 5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2018년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 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존중하고,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교회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길을 선도하는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 공동번영과 통일시대를 바라보며 북한 지역의 선교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북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통합)의 남북한선교와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간략하게 개괄하고 향후 전망을 언급하고자 한다.

평화통일기도회

한반도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최대의 과제이다.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절실하게 요청되는 일이다.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이다. 분단 이후 한국교회는 예배나 기도회에서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총회는 정전체결 60주년이 되는 2013년부터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까지 특정 기간을 정하여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3년 과정”을 실시하였다. 교단 산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였다.

총회는 그 첫해인 2013년 6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주간”으로 선포하였다. 이 기도주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발간한 묵상집에는 한 주간 단위로 7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월요일은 성찰, 화요일은 회개, 수요일은 용서, 목요일은 소통과 화해, 금요일은 치유, 토요일은 화해와 상생 그리고 주일에는 평화와 자유로 정하였다.

두 번째 해인 2014년에도 동일한 기간 동안 기도운동을 전개하였다.

세 번째 해인 2015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70개의 기도문을 담은 『70일 특별기도운동 자료집』을 발행하였다. 총회 산하 교회들은 총회가 정한 70일 동안 민족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에 동참하였다.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3년 과정”의 기도운동 동안 총회 산하 교회들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였다.

기도운동 3년이 지난 2016년에는 향후10년 동안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교회들과 더불어 한반도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민족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세계기도운동 자



〈장신대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에서 발간한 북한과 통일 관련 도서들 (갯피플물)〉

료집』(2016. 8. 15~2026. 8. 15)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집에는 100가지의 기도제목과 그에 따른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도운동을 통해 한반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 공동번영의 날이 오리라 믿는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통일한국이 세계를 섬기고, 한국교회가 온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평화통일학교

총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와 공동으로 총회의 통일역량강화를 위해 통일선교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년 2학기의 학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저녁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소양관에서 강의가 진행된다. 현재 600여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다.

수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 관점에서 본 평화통일, 한반도 통일의 조건과 통일정책 방향, 최근 북한의 변화와 한국교회의 과제,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통일한국, 북핵 위기와 국가안보전략, 남북정상회담과 비핵·평화 프로세스,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남북한의 문화 통합과 한국교회의 과제, 기독교세계관과 한반도 통일, 통일 한국의 비전과 기독교인의 사명, 독일통일이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 북한의 현실과 북한선교, 북한의 한류 현상과 사회변화,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선교 과제, 북한의 경제 현실과 전망, 북한 체제의 형성과 운영, 북한주민의 생활과 문화, 북한사회와 주민의 일상 등이다. 강사진은 각 주제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선교대학원에서는 1년에 5~6회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분단현장을 탐방한다. 강화도, 백령도, 도라산, 판문점, 철원 등 비무장지대 평화순례기행을 하고 분단의 현장에서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통일기도회를 갖는다. 그리고 해마다 북·중접경지역을 찾아 압록강변, 두만강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평화기원순례기도회를 갖는다.

남북한선교와 평화통일을 위한 지침서

총회는 분단 이후 남북한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북한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해왔다. 2004년 총회는 제89회 총회에서 “총회 북한선교 입장과 통일선교정책”을 채택했다.

사역수기

탈북민을 통일세대로 세우는 사역

조이김 선교사

북한 사역 관점에서 탈북민은 아주 중요한 선교 대상이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면서 이들은 북한과 한국을 모두 경험한 자들이기에 한국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다면 통일 이후 사회 통합 및 북한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탈북 청소년 및 청년들은 통일 한국의 다음 세대로서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본인은 지난 2013년도부터 탈북청소년 및 청년들의 건강한 정착과 복음 증거를 위한 단계별 사역을 진행해오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한 걸음씩 사역을 진행 하다 보니,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셨음을 알게 된다.

8년간 진행해 온 사역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사역을 하게 된 계기와 사역의 방법 중심으로 글을 통해 소개해 보겠다. 그렇게 진행하게 하신 탈북청년들을 위한 사역의 필요들과 접근 방법들을 나누는 것이 북한 사역 관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우리홈 사역 : 가정에서의 돌봄

C국에서 무연고 탈북청소년 두 자매와의 만남에서부터 사역은 시작되었다. 이들은 무연고이기에 가족이 없었고, 이들이 한국에 나오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시설에 맡겨지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했고, 이들이 하나원에 있는 동안 집을 준비하여 ‘우리홈’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수료하는 날부터 우리홈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얼마나 용기가 있었는지 ‘나는 탈북민들과 살아봤는가?’를 물어보기도 전에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밥을 해 준 적도 없었기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부담으로 시작하였다.

우리홈을 준비하면서 어떤 공동체가 이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얻은 답변은 ‘가정’이 되어 주는 것이었다. 당연한 답변이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살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내 안에 여러 가지 결단이 있어야 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율을 만들지 않는 것, 당번제로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것, 말로 가르치지 않고 먼저 보여주는

그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다 체계화된 지침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4년 11월 지침서 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거의 2년간의 작업을 거쳐 지침서를 만들었다. 2016년 제101회기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남북한선교와 평화통일을 위한 지침서”를 채택했다. 이 지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선교와 평화통일을 위한 총회의 기본 입장
2. 총회의 북한선교와 한반도 평화통일운동 역사 개관
3. 북한사회와 종교 이해
4. 북한선교·평화통일의 성서적 기반
5. 북한선교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성서적 기반
6. 북한선교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향과 원칙
7. 북한선교·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전략
8. 북한선교·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프로그램

자세한 내용은 총회 홈페이지 (pck.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북한교회의 교류와 인도적 협력사업

총회는 본 교단 내에서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을 하는 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교회지원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인도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적 협력사업은 북한지역 동포를 향한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한국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다. 남북한교회가 함께하는 이 사업은 민족의 연대의식을 강화한다. 수혜 대상은

북한의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다. 주요 품목은 어린이 겨울내의와 제빵재료인 밀가루와 콩기름 등이다.

2018년 4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적대와 불신의 시대를 넘어 화해와 평화,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 새로운 시대에 한국교회는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북한지역에 교회 설립 계획 이전에 동포를 향한 사랑의 나눔이 선행되어야 한다. 화해와 평화, 신뢰의 바탕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 남북한교회가 교류와 협력을 하여 북한지역에 선한 일이 쌓여야 북한주민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역사를 펼칠 수 있다.

한국교회는 남북한이 분단으로 인한 오랜 증오와 적대의 길을 버리고 치유와 화해, 상생과 평화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한반도의 해묵은 상처와 미움과 적대감을 치유하고 화해와 평화의 일꾼으로 평화를 꿈꾸며 만들어 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길, 아직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다. 우리 모두 담대하게 손에 손을 잡고 평화로 가는 길로 들어서자. 이 길이 한반도에 미래와 희망을 가져오는 길이요, 북한주민들과 더불어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나누는 길이다. 🐟



것,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편안하게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소소한 집안일부터 먼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기다려 주는 것을 선택하였다. 물론 예상대로 쉽지 않은 기간을 보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이 오고 싶은 공간, '집'으로 느끼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했다.

그동안 많은 아이들과 살면서 이루 다 말하지 못할 일들이 있었지만, 가정을 통한 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에 집중한 사역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세 곳의 가정공동체에서 15명의 탈북청년 및 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다.

우리스터디 사역 : 사회관계망 형성

우리홈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에 집중하고, 가족

으로 이들과 더욱 가까워지면서 보여지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었다. 장학재단에 참석하여 자연스럽게 탈북민인 것이 알려졌을 때부터 무시를 당하고, 관공서에서 탈북민으로서 일을 보려 할 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공감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 느껴지는 소외감등이 한국 사람을 가까이하는 것을 더욱 힘겹게 하는 것이었다.

사회적응에 중요한 요소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통일이라는 시선으로 보아도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들을 보면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얻은 것은 '과외'였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조금은 인위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고, 자신의 배경과 상황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그것들이 받아들여지며, 신뢰를 기반으로 도움을 나누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2014년도에 처음으로 3명의 한국 청년들을 초대하여 과외를 시작하였다. 과외 자체의 목적보다는 관계 형성에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만남에 더 중점을 둔 것은 '밥'이었다. 한 식탁에서 식사를 먼저 나누며, 교제한 후에 과외 하는 것을 시도해 보았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탈북친구들은 한국 청년들의 섬김에 감동하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며 자신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것을 알고, 좋은 친구로, 언니, 오빠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런 관계망 형성은 더 넓게 확장이 되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대로 좋은 남북한 청년들의 친구 관계가 형성되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가 되었고, 대학 입학 이후 당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한 청년들을 북한사역에 관심 갖도록 이끄는 데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더 많은 관계로 확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우물 사역 : 사회진출을 위한 디딤돌

우리홈 가족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전공과 취업에 대해서 고민할 나이가 되면서 또 다른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일터에서의 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잠시라고 경험했던 일터에서 이들은 쉽게



위축되었고,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나는 그 원인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한국 일터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일터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부족한 것에서 시작되어 그래서 당해야 했던 많은 일들이 자신감을 잃게 하고 있었다. 자신감이 없었기에 더욱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악순환이었다.

안전하게 실수 할 수 있는 일터, 성실함과 책임감을 연습할 수 있는 일터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더불어서 우리스터디를 진행할 공간도 필요했기에 그 일터를 '카페'로 준비하였다. 우리 모두의 공간이며 모두의 사업체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 처음 설계부터 카페 컨셉 등을 함께 상의하면서 진행하였다. 텅 빈 공간을 카페로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페인트칠을 함께 했고, 예쁘고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가구나 소품을 함께 고르고 결정하였다. 메뉴와 레시피 결정도 탈북친구들을 투입 시켰다.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카페들의 맛있는 음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레시피를 결정해 주었다. 정말 행복해했고 매일 기적과

같은 시간이었다.

우리홈 가족들의 협력으로 작년 9월에 카페우물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함께 세운 카페였기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픈하였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영업도 은혜를 내려 주셨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으며, 그만큼 탈북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는 4명의 탈북 친구들이 일하고 있다. 그리고 베이커리까지 확장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2명의 탈북청년들이 또 다른 2명의 한국인과 함께 베이커리를 배우고 있고, 내년 초에 베이커리를 오픈할 예정이다.

카페우물은 탈북친구들이 안전하게 실수할 수 있는 일터이며, 일터에서 한국사회를 경험하게 하는 곳이다. 그리고 성실함과 책임감을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북친구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많이 용납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감과 성실함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고 있다. 또한 월급과 세금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대우하고 있다. 우리의 매장이기 때문에 신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매출도 공유하면서 운영도 함께 배워나가고 있다. 카페우물을 통해 더 많은 친구들이 한국 사회를 더 자신 있게 대하고 자신의 역량을 더 많이 발휘하는 자신감을 갖기를 기대한다.

우리하나교회 사역 : 영적 공동체

탈북친구들과 살아온 시간이 어느새 8년이다.

되돌아보면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매년 분주했고, 불안했고, 힘겨웠던 시간들이 깊숙이 채워져 있었다. 상처받은 친구들이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한 반응은 때로는 아픔으로 남겨질 때가 있었다. 위기가 올 때 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런 행동이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았다.

나는 안정감을 가진 친구들 같았는데 위기에 상황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며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답변은 교회 공동체였다.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직접 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이 친구들이 한국 교회 청년부 공동체에 들어가서 적응하며 함께 몸을 이루는 것이 더욱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교회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만,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받아야 하는 소외감과 상처를 똑같이 받아오고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도움만을 바라보고 교회를 찾는 모습에서도 안타까움이 있었다.

몇몇 친구들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



회 공동체를 세워보기로 결정하였다.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세운 몇 가지 규칙이 있었다. 첫째는 이 교회는 누구에게도 강요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홈에 살고 있으면 반드시 교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규율을 두지 않았다. 복음을 의무가 아닌 부딪힘 속에 선택하도록 하고 싶었다. 실제로 우리홈 가족 중에 다른 교회에 참석하거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 둘째는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이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돈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적잖게 봐왔기 때문이다. 교회를 세우면서 나는 아이들에게 헌금을 먼저 가르쳤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재정을 드리는 것이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성경공부를 진행할 때도 교재비나 간식비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교회 재정의 대부분은 두 곳의 선교지를 정해서 정기적인 후원과 필요에 따라 특별 헌금으로 흘려보고 있다. 셋째는 목장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담임목회자 한 명 중심의 교회가 아닌, 목장 리더가 직접 목회는 하며 목

원을 돌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두 목장이 세워져 있다. 한국청년과 탈북청년이 함께 리더로 섬긴다. 목장모임은 평일 중 하루로 정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초대하여, 자신의 재정으로 직접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 후에는 자신의 삶을 나누는 시간으로 갖는다. 삶을 나누면서 울고, 자신의 상처들을 고백하면서 조금씩 하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있다.

8년간의 사역을 되돌아보면 탈북민 사역은 할수록 더욱 답이 안 나오는 듯 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다. 그렇기에 매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했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가야만 했던 것 같다. 지금도 여전히 방도는 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들을 이곳에까지 부르신 이유가 있고, 이들을 섬기며 세우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것이다.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은 내딛는 것, 그리고 일 중심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탈북민 사역에 중심이 되어야 함을 느끼게 된다. ☺

+ 토니 블링컨 미 국무, “공은 북한에 있다”



〈5월 21일 한미 정상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이틀만인 5월 23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북한인권대표보다 먼저 임명했고, 인권과 관련한 비판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으니 북한이 답할 차례라는 의미다.

블링컨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나’는 질문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북한 문제를 후순위로 둘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인내전략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톱다운 전략도 소용이 없었다며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자신이 한 일을 방문했고, 이번에는 문제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블링컨은 “바이든은 신중하고 조정된 접근법으로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실제로 관여를 하고자 하는지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했다.

다만 “일거에 해결되는 일괄타결이 있을 것 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우리는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문제는 북한이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 정부는 북한과의 물밑 접촉에 대해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날 블링컨의 언급을 보면 미국이 제한한 대북접근법 설명을 위한 접촉에 대해 북한이 아직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블링컨은 외교적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일괄타결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바이든도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 사람(김정은)의 말만 갖고 할지 안 할지 판단하지 않겠다”, “(비핵화에 대한) 환상도 없다”는 발언을 했다.

북한에 협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지만, 미국 진보진영에 ‘트럼프와 다르게 북한에 할 말은 하고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북한이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한미의 정책이나 주요 언급에 1주일 정도면 반응을 보인다는 게 통념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주기가 더 길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이 반응할 유인책으로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참고: 서울신문, 5월 24일)

+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5월 10일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4월 25~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 문화,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 만약 감옥에 가더라도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0일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5월 2일에는 담화 3건을 연이어 내며 한국 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했다. 실제 북한은 전단 살포 등에 무력으로 대응한 전례가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4월 19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참고: BBC 코리아, 5월 11일)

+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에 반기독교교육

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사상교육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특히 출국 전 노동자들에게 반기독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데일리NK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전체 선발 심사 중 마지막 4단계 심사 전 국가보위성 주관 하에 사상교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상교육 내용 중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 ‘성경은 모두 허황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등 반기독교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기독교를 주체사상과 대비하면서 ‘종교는 마약과 같고 이를 믿으면 헤어지지 못해 생활이 망가진다’ ‘성경은 주체사상과 반대되는 미신에 불과하며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메시지도 해외 파견 노동자들

에게 주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당국이 신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반기독교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기독교를 접한 후 한국이나 미국 등으로 탈북을 강행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근 의무 복무 군인들의 해외 파견을 확대하고 있는 북한 당국은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성들이 해외에서 도주하지 않을까 더욱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가족을 인질삼아 탈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국가는 해외 노무자(노동자)를 늘려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탈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참고: Daily NK, 5월 10일)



제목: 통일의 눈으로 백령도를 다시보다
 저자: 강동완
 출판사: 너나드리
 발행일: 2021년 3월 21일
 가격: 24,000원

이 책의 저자는 북한한류, 북한문화 연구로 유명한 학자이다. 그런 저자가 몇 년 전부터 연구영역을 문화지리학으로 확장하여 연구를 이어가며 책을 출판하고 있다. 그는 통일과 관련된 지역을 방문하여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과 사진을 담아 책으로 엮어 출판하고 있는데 그가 소개한 지역으로 해외로는 조중국경으로부터 시작하여 러시아 극동지방, 독일에까지 이르며 국내지역으로는 서울과 부산이 있다. 이 책들은 풍성한 사진과 이야기들로 가득찬, 남북통일을 주제로 한 지역안내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국내지역을 다룬 그의 첫 번째 책 “통일의 눈으로 부산을 다시보다”에서 이 시리즈의 저술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분단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 통일은 일상에 스며들지 못한다. 분단 70여 년의 아물지 않은 상처는 우리 사회 곳곳에 분단과 전쟁의 흔적을 남겨 놓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았다. 6,25전쟁은 우리에게 잊혀진 역사인가? 전쟁의 기억과 상처는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산재해 있다. 전쟁 관련 유적지와 흔적들은 무관심 속에 방치된다. 어쩌다 지역의 문화관광상품으로 재구성되기도 하지만 통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상업적 상품으로 이내 변질되고 만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주입과 강요가 아닌 ‘재미’와 ‘흥미’를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지 체감형’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과 접목된 공간으로써 대중에게 친숙한 접근을 통해 세대별로 특화하고, 재미와 감동이라는 요소를 결합하여 통일논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산재한 분단과 관련한 문화유적지를 발굴, 재구성하여 단순한 관광상품이 아닌 통일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 저자는 본인의 이러한 다짐에 따라 두 번째 책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보다”(너나드리, 2019)를 펴냈으며 최근에는 세 번째 책 “통일의 눈으로 백령도를 다시보다”를 출간하였다.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 백령도와 소래교회의 관계부터 살펴보아야겠다.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는 1883년에 장연군 소래마을에 세워졌다. 소래교회의 개척자인 서경조, 서상륜형제가 인삼장사로서 주로 활동한 곳이 만주와 평안도였고 이들 형제의 고향이 의주였으므로 많은 이들은 소래교회도 당연히 평안도 어디 즈음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막연한 선입견이 만들어낸 오류이다. 소래교회가 설립되었던 소래마을은 서상륜, 서경조 형제의 삼

촌이 정착해 있던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에 위치해있다. 이들은 삼촌의 도움으로 소래마을에 교회를 세웠다고 전해진다. 소래교회가 있던 장연군 대구면은 해안면, 룡연면, 백령면과 인접해 있었는데 이 “백령면”은 다름 아닌 현재 남한 옹진군에 소속된 백령도이다. 백령도로부터 남한의 육지까지의 최단거리는 170km가 넘는 반면 소래교회가 있던 송천리까지의 거리는 채 40km가 되지 않는다. 한국인이 갈 수 있는 소래교회와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백령도이다.

저자는 백령도를 거창하게 ‘죽기 전에 꼭 다녀와야 할 여행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단을 살아 가는 우리라면 반드시 한번은 다녀와야 할 통일성지로 평가한다. 이 책에서 설명하듯이 백령도는 지리적으로도 북한과 매우 인접하여 북한을 조만할 수 있으며 섬 전체에 북한과 관련된 장소들이 분포한다. 특히 낡은 철책 선을 통해 과거 전쟁의 기억을, 새로 교체된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날 선 철조망을 통해 분단이 아직 진행형임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백령도의 자연환경 또한 이탈리아 나폴리 해안과 함께 전 세계에 단 두 곳 밖에 없다는 사곶해안, 수억 년의 시간들이 바위를 빗어 만들어낸 콩돌해안 등 천연기념물만 다섯 곳이 넘는다. 또한 백령도는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방문에 앞서 먼저 발을 디딘 섬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 책을 위해 3주간 백령도에 머물며 현지 조사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 책은 여객선이 정박하는 용기포 신항 으로부터 시작하여 해안도로를 따라 시계 반대방향으로 섬을 돌며 30곳의 중요한 장

소를 소개하고 있다. 1장에서는 섬의 동쪽 끝 용기포 신항으로부터 북쪽 중반부의 백령도 기상대까지를 다루는데 이곳의 안보유적으로는 최서단 북한 전망대인 끝섬전망대, 하늬해변에 설치된 상륙저지장애물 용치(Dragon's teeth), 동קי부대 막사, 백호부대 전적비 등이 있다. 백령도는 심청전의 배경이기도 한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청각은 백호부대 전적비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다보면 만날 수 있다. 심청각에서는 장산곶과의 사이에 있는 인당수를 볼 수 있다. 1장에서는 그밖에도 여러 사진을 통해 고봉포구와 사자바위의 풍경을 소개한다.

2장에서 소개하는 두무진 해안에는 북한의 장산곶 방향을 향하고 있는 항구가 위치한 곳이다. 과거 백령도가 장연군에 속해있을 때는 백령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배가 바쁘게 오갔겠지만 현재는 백령도 유람선과 해병대 순찰선이 정박하고 있는 곳이다. 두무진의 뒤 언덕에는 장산곶을 조준하는 대포진지가 남아있다. 2장이 소개하는 백령도 서부와 남서부 역시 12지점 임현상 소령 추모비, 13지점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등의 안보관광 유적이 풍성한 사진들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1장에서 2장 중반까지 실린 1-14지점은 주로 백령도의 동쪽과 북쪽해안을 소개하고 있는데 책에 소개된 사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풍경에 철조망이 둘러있다. 저자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독자들은 이를 통해 서해5도의 긴장감을 자연스레 눈으로 보게 된다. 반면 백령도의 남쪽과 내륙을 주로 소개하는 2장 후반부-3장, 15-30지점의 사진에서는 철조망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 부분에는 여느 농촌마을과 다를 것 없이 넓은 논이 펼쳐진 가을리, 백령식수원 댐 등의 백령도 주민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소개되고 있고 뒤이어 한국 선교역사의 중요한 유적인 중화동교회, 북한 방송 선교의 최전선 극동방송 백령도 스튜디오를 소개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책의 11, 12, 13지점의 사진을 보면 이 지점들 모두가 해넘이 명소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부록으로 백령도의 황해도식 냉면집들을 소개한다.

이 책은 통일감성여행 답사기이다. 그러나 이 책을 활용할 이들은 답사기를 읽는 목적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자와 같이 통일감성여행을 계획 중인 이들이 많을 것이다. 저자가 소개하는 지점은 널리 알려진 관광지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이 책에는 북한폐품 보물창고와도 같은 저자가 처음 소개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 지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주소라도 적어줬다면 찾아가기 쉬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책에서는 토마스 선교사, 중화동교회와 같은 교회사관련 인물, 유적에 지면을 할애하며 북한선교의 전진기지인 극동방송 백령도 스튜디오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신앙서적이 아니므로 기독교 관련 지점과 이야기를 단편적으로만 다룬다. 그러나 서두에 썼듯 백령도는 교회사에 있어서도 북한선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섬이다. 백령도의 기독교를 다룬 책으로는 백령한사랑교회 집사로서 백령도 기독교의 역사를 오래 연구해온 故김지현 집사가 2002년 출간한 “선택

받은섬 백령도”라는 책이 있었는데 최근에 대신대 이종전 교수가 이를 개정해서 같은 제목으로 개정판을 출간 하였다(아벨서원, 2020). 6,25전쟁 연구의 권위자인 신기철 작가가 쓴 “지역민에게 듣는 웅진 이야기, 한국전쟁, 전장의 기억과 목소리”(역사만들기, 2020)에도 6,25 당시 중으로 인한 지역민들간의 학살이 일어나던 시절 백령도에서만은 피의 광풍이 피해가게 만든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다. 코로나 여파로 해외여행, 비전트립이 어려운 올 여름 해외선교여행을 대신하여 백령도로 통일선교답사, 비전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 이 책과 더불어 귀한 도움이 될 책들이다.

이 책의 저자 강동완 교수는 성실한 학자이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저자는 과거 다른 책의 서문에서 말하길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맞서려한다”고 연구동기를 밝혔으며 이 책의 서문에서도 “북한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통일을 위해 두 손 모으는 이 땅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말한다. 그의 저작동기에 기독교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저자의 글을 읽는 성도라면 통일을 위한 그의 모든 연구가 신앙적인 소명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서해수호의 날 (3월 26일)에 맞춰 이 책을 발행했다. 필자도 저자의 뜻을 기리어 호국보훈의 달인 6월호에 이 책을 평하며, 이 책이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들, 최전선 안보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이들 그리고 통일비전트립을 위해 백령도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1. 한국교회 북한선교의 발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각 교단은 항상 북한을 품고 기도해왔고 감사하게도 대다수 교단 내 북한선교를 위한 조직이 존재합니다. 교단에 따라 북한선교를 전담하는 조직이 활성화된 교단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단도 있습니다. 교단직영 신학교와 연구기관을 통하여 북한선교와 통일을 준비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각 교단이 북한선교를 위해 더욱 열심을 내도록, 각 교단이 북한선교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선교를 위한 지적,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선교단체가 북한선교 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북한선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여왔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북한선교 헌신자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북한선교 석사과정,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 학과, 총신대 평화통일개발대학원 과정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북한선교-통일 관련 전문가집단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각 훈련프로그램과 대학의 북한선교-통일 관련과정이 더욱 성장하고 내실을 갖추어 이들을 통해 준비된 통일일꾼들이 더욱 많이 양성되기를 기도합니다.
3. 북한선교현장의 인력수급을 위해 기도해주시십시오. 선교 현장에는 과거에 비해 탈북자들이 많이 줄었고 선교현장 당국의 통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수년째 수많은 선교사들의 비자발적 철수가 이어지고 있고 남아있는 선교사의 사역도 일부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헌신된 선교사는 늘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남아있는 선교사들의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헌신된 북한선교사 후보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와 북한선교 현장에 준비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4. 국제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 간 북한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회담 이후 미국 국무장관에 의해 전해진 미국의 입장은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인내전략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톱다운 전략도 소용이 없었다. 바이든 정부는 신중하고 조정된 접근법으로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남한과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혜롭게 공조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풀어내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기도 제목

5. 현재까지도 코로나로 인한 국경통제의 악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코로나로 멈춘 후 아직 재개되지 않는 사역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동남아 국가들에 남한 행을 시도하던 탈북자들 중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는 탈북자들도 있습니다. 어서 국경통제가 완화되어 정지된 사역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6.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북한은 장마로 인해 큰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북한의 언론들은 장마대비와 관련된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올 장마철 북한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당국과 주민들이 이에 잘 대비하도록 기도합시다.
7.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신앙으로 인해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감옥에 갇힌 북한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기도합시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1년 6월 1일

OpenDoors

World Watch List 2021 월드와치리스트 - 기독교박해지도

크리스천들을 가장 박해하는 국가 TOP 50

1	북한	26	튀니지	31	앙골라	46	말레이시아
2	아프가니스탄	27	모로코	32	부룬디	47	인도네시아
3	리비아	28	말리	33	에티오피아	48	쿠웨이트
4	소말리아	29	카타르	34	오만	49	케냐
5	파키스탄	30	콜롬비아	35	모잠비크	50	코모로
6	에리트레아	31	방글라데시	36	말레이시아		
7	예멘	32	부룬디	37	인도네시아		
8	이란	33	타지키스탄	38	쿠웨이트		
9	나이지리아	34	네팔	39	케냐		
10	인도	3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40	코모로		
11	이라크	36	에티오피아	41			
12	시리아	37	오만	42			
13	수단	38	모잠비크	43			
14	사우디아라비아	39	말레이시아	44			
15	미얀마	40	인도네시아	45			
16	이집트	41	쿠웨이트	46			
17	중국	42	케냐	47			
18	미얀마	43	코모로	48			
19	베트남	44		49			
20	모리타니아	45		50			
21	우즈베키스탄	46					
22	라오스	47					
23	투르크메니스탄	48					
24	알제리	49					
25	터키	50					

박해수준

● 극심한 수준의 박해 ●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는 크리스천의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 국가들의 순위를 정한, 독립적이고, 종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오픈도어 분석가들이 150개 국가의 현장으로 부터 오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각 국가의 박해수준은 오픈도어가 이용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크리스천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지가 보장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의 조사 방법과 결과물은 국제종교자유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의해 감사를 받습니다. WWL 2021 데이터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 해당됩니다.

“내 삶과 조국을 위해 내 마음과 꿈을 다시 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은 민주주의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거나 지난 후 더 중요하게는 많은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아들은 너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오늘 열린 마음으로, 나는 북한에 대한 나의 꿈과 희망의 아들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탈북 디모데 황제

“너희도 함께 간헐 것 같이 간헐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8133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www.opendoors.or.kr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파송선교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해외 파송 선교사 (여성 사역 부분: ○명 / 일반 사역부분: ○명)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현장사역 참여
(제자훈련, 지도자 훈련, 구제·구호 사역 등)
- 여성 사역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사역 참여

> 지원자격

- 교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해외 여행 및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정통 교단 소속 교육부 인가 신학교 졸업 예정이거나 목회학 석사학위 (M.Div)를 받은 분
-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 분
- 여성사역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 (독신자 우대)
- 연령제한은 45세이나 예외 가능,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담당 교역자 1부, 담당 교수 또는 소속 단체장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일반 건강검진 결과 (최근 2년, 면접 이후 제출)

> 기관 소개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참조

> 사역 조건

선교파송자는 선교회의 기준에 따라 사역 비용 및 현지 체류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모집 기한

사역자 모집완료까지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문 의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이메일 (info@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